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 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시정운동 47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서 친필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당헌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지도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했고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강성민정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의 뉴대를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복리에 무합하게 봉고히 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7년 11월 19일

디마스끄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울란바타르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면서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친제 당원들에게 따뜻하고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좋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 제28차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6(2017)년 11월 20일

평양

## 백두의 칼바람은 최후승리를 부른다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한 추위, 걸쳐드는 식량난,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저 멀리 천고명에 새겨진 이야기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새차에 울려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만주요지에서 우리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질망에 빠져 무항하기를 고대하고있다. 력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원리를 주지 않았다. 력사와 시대앞에서 자기앞에 부패된 피체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층 흉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불초자이다. 한가정이나 가문의 번영을 위하여 넘어지기 싫을 날아주고 걸터온 인민앞에서 불초자가 되고마는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초자가 되지 않을것이다. ...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 그 어떤 천지동역에서도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런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정신인이며 온 세상 굶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에 이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칼바람을 그리도 사랑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때문이며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을 역세게 추풍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해로운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사람같이, 잠시 순열한 마음으로 일제와의 견고한 혈전을 벌이면 항일전의 그날들을 삼가 들이켜보시라. 하늘에서는 적미행기가 투항을 설교하는 벼락을 뿌리고 땅에서는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간악한 일제의 무리들, 벼속까지 얼어드는 흑심

령은 반미대결전에서 편견편승을 떨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로를 열어놓은 경이적인 현실들을 장엄히 펼쳐놓았다. 정녕 백두의 칼바람을 떠나 백두산을 생각할수 없듯이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떠나 백두정신을 주체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디에는 주제 102(2013)년 11월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았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벼속같이 스며드는 모진 추위가 대지를 얼리는 날씨에 삼지연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살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벼가 무서워 가루가 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걸음에서 굽힘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이비으로부터 물러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필적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라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테크도 범함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자신께서도 혁명의 총대를 메어주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한걸음 변함없이 걸어갈수 드렸다는 신념을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뜻있는 말씀에서 천만군민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 땅에 백년백승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심장같이 새기였으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맹세를 더욱 굳게 간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연결한것으로 동지 그이의 명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처럼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두의 칼바람은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를 소리쳐부른다. **본사기자 정순하**